

상월결사는 10월 28일 의성 고운사에서 마음방생 평화순례를 개최했다. 4000여 대중이 참석한 이날 순례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 대중이 고운사 산문에 들어서고 있다.



고운사 법계도림을 순례하는 자승 스님과 순례 대중들.



자승 스님이 상월결사 죽비를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고운사 법계도림에서 순례에 참가한 4000여 대중이 걷기수행을 하고 있다.

4천 불자, 가을 숲길 걸으며 평화 원력 세우다

상월결사, 의성 고운사서 마음방생 평화순례 개최

의성=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걸음 닿는 곳마다 부처님의 도량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인류애로써 생명을 키워내는 자애로운 대지 위에서 그들의 고통 곁으로 묵묵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가을 한복판에 들어선 등운산 고운사에 평화를 서원하는 불자들의 발원이 울려 퍼졌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0월 28일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일원에서 '상월결사 마음방생 평화순례'를 개최했다.

마음방생 평화순례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생이며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첫 걸음"이라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걷는 수행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생명존엄의 가치를 깨닫는 데 순례의 목적을 두고 있다. 2022년 3월 대흥사에서 시작된 마음방생 평화순례는 월정사 · 백양사 · 법주사 · 은해사 · 화엄사에서 진행됐으며, 올해의 첫 순례는 고운사에서 이뤄졌다.

이날 마음방생 평화순례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 대종사를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제16교구본사 회주 호성 · 주지 등운 스님, 제25교구본사 주지 호산 스님, 교육원장 범해 스님, 포교원장 선업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WISE 캠퍼스 총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과 전국 40여 개 사찰 4000여 불자들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한 김주수 의성군수,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장근호 의성경찰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순례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마음방생 평화순례 입재는 고운사가 조성한 법계도림에서 봉행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신행문화가 정착되길 서원했다.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마음방생 평화순례는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음의 자유, 곧 마음의 방생을 이뤄내기 위해 시작했다"면서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걷는 수행으로써 내 자신을 성찰하여 내 마음의 평화를 함께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 전법을 통한 한국불교의 미래는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신행문화의 진실한 참여에 기초한다"면서 "마음의 방생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순례가 지대한 원력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뭇 생명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어우러져 시대에 맞는 수행과 신행문화가 정착돼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과 순례 대중이 고운사 대웅전 부처님을 참배하고 있다.

전국 40여 사찰 4000여 대중 참가

법계도림~고운사 걸으며 마음 방생

동국대 장학생들 참여, 자기 성찰해

자승스님 "걷기수행으로 마음평화를"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죽비를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에게 전달했으며, 등운 스님은 전달받은 죽비를 쳐 상월결사 정신이 고운사에 전해졌음을 알렸다. 등운 스님은 "오늘 마음방생 평화순례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에서 이처럼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고운사 숲길을 걸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시길 바란다"면서 "고운사 본말사 사부대중은 대학생 전법과 한국불교 중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례 참여 대중은 안윤효 제16교구신도회장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다. 순례 대중은 "내가 나의 마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대자유이고 방생이며 평화를 나누는 순례의 시작임을 알아가겠다"며 "우리 사는 세상이 차별 없는 자유와 평화의 정토이기에 슬픔과 비탄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새로 보게 하시고 절망과 공포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다시 얻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본격적인 순례는 약 500m의 법계도림을 도는 것으로 시작됐다. 신라의 고승 의상 스님이 화엄일승의 교리를 7언 30구의 게송으로 정리한 것을 다시 도해한 것이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다. 자승 스님을 필두로 한 사부대중들은 법계도의 숲을 묵언으로 걷기 수행을 하며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법계도의 숲에서 시작된 순례행렬은 고운사 천년 숲길로 이어졌다. 가을 단풍으로 장엄된 2km의 숲길을 4000여 순례 대중들은 합장하며 묵묵히 걸어 나갔다. 숲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걷기 수행을 하니 어느덧 고운사에 도착했다. 대중들은 대웅보전 부처님을 참배하고 복전함에 보시를 이어갔다. 이날 순례에서 모연된 기금은 모두 상월결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전법 불사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운사는 이날 전국에서 찾아온 순례 대중에게 점심 공양을 제공했다. 국수 한 그릇에 힘을 얻고 휴식을 취한 대중은 다시 법계도의 숲을 향해 걸어갔다. 총 4.5km의 순례는 법계도림에서 순례 동참 사찰 주지스님들이 마음 방생 축원의식을 올린 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삼창으로 회향했다.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은 오늘의 순례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마음 방생 평화 순례에 처음 참석한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고운사에 오기 위해 새벽 4시부터 준비했다. 이때부터 고운사의 모든 순간들이 저의 마음 방생 평화 순례"라면서 "고운사 숲길들을 걷기 수행하며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발원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같은 대오(大悟)의 순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 정광중고 불교어머니회 회원 이미숙(46) 씨는 "교법사스님의 권선으로 참석하게 됐다. 처음 마음 방생 평화 순례에 참여했는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대학생 불자들의 순례 참여가 많았던 것도 이번 순례의 특징이었다. 특히, 동국대 장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해인사와 불굴사를 다니는 불자인 동국대 체육교육과 배준현(이서장학생) 씨는 "평소에는 학업과 알바에 신행활동하기 어려웠다. 오늘 순례를 통해 신행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면서 "고운사의 숲길을 합장하고 묵언하며 걸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같은 신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체육교육과 황수영(불교청년지도자장학) 씨도 "동국대 장학생으로서 가을 천년고찰을 걸으면서 신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걷는 순간이 힐링으로 다가왔다. 내년에 임용고시를 보는 데 고운사 부처님께 임용 합격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www.palgwanhoe.or.kr

2023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부산불교연합회가 응원합니다!





2023 팔관회 Turn Toward Busan 참여

호국불교의 상징인 팔관회 행사를 맞아 '턴 투워드 부산'행사에 부산지역 전 사찰이 동참하여 신성한 불음(佛音)으로 고통 받는 중생의 번뇌를 벗게 하고 모든 중생의 영혼을 구제하는 범종을 울림으로써 순국선열의 왕생극락 발원

- 일시 :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역 전 사찰
- 내용 : - 1분간 범종, 죽비, 목탁 등의 11타와 함께 추모묵념
  - 부처님의 법음을 통하여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순국선열들의 왕생극락 발원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Turn Toward Busan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해 한국 현지 시각에 맞추어 동시에 묵념 및 추모행사를 진행하여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행사이다.



동참방법 1. 오전 11시 범종, 죽비 등을 1분 동안11타 하고 UN기념공원을 향해 묵념 등 추모행사 봉행
2. 휴대전화 등으로 행사장명 녹화
3. 부산불교연합회로 영상 전달

영상전달 방법 문의 051-867-0501

이메일 전송 주소 story12311@naver.com ※ 제목 : 지역, 사찰명 표기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3 팔관회조직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400호(양정동, 불교회관) 051)867-0501~3